

세계 종교인 모여 평화 기원한다

조계종, 내년 10월 '세계평화 기원대회' 추진

35차 본사주지협 회의서 보고
 내년 10월 8~11일 대회 개최
 세계 종교인·사회적 약자 초청
 무차선대회·전통문화 행사 진행

올해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에 이어 내년에는 세계 각국의 불교 지도자와 이웃종교 지도자들이 모이는 대규모 종교 행사가 불교계의 주도로 이뤄질 전망이다.
 조계종 총무원에 내년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서울 광화문 일원에서 '세계평화와

국민통합을 위한 기원대회'를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26일 동화사에서 열린 교구본사주지협의회 제 35차 회의에서 기원대회 일정과 계획안이 처음 보고되며 알려졌다.
 "참나를 찾아, 세계평화와 국민통합에 기여하자"는 주제로 진행되는 대회는 △세계계무차선대회(세계고승수계식) △평화기원대회 △사회적 약자 초청 전통문화 행사 △전통문화 순례 등의 행사로 구성될 예정이다.
 평화기원법회에는 세계종교평화회의 평화선언과 평화의 등 점등식, 평화의 종 타 종 등의 세부행사를 계획하고, 사회적 약자

초청 전통문화행사에는 다문화가족과 고려인, 사회소외계층 등을 초청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광화문에서 열릴 예정인 기원대회는 세계 고승들이 불자들에게 수계를 하는 의식을 봉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유대교 이슬람 가톨릭 등 세계종교대표들이 공동 평화선언도 발표될 예정이다.
 기원대회에 참석할 종교지도자로는 15개국의 불교지도자와 세계 5대 종교계 대표 10여명, 국내 6대종교대표 등 총 300여 명이며, 기원대회 기간 동안 50~100만 명의 대중이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원대회는 종정 진제 스님과 前 종정 법전 스님을 증명으로 원로회의 의장 밀운 스님이 법주를 맡고 원로의원과 총림 방장, 조실 및 대종사 스님들이 고문으로, 총무원장을 대회장장으로 하는 기원대회 봉행위원

회를 구성해 추진된다. 현재 총무원은 관련 사무국에 채용을 마쳤으며 조만간 기구를 발족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원대회에 대해 총무원은 "종교간 화합을 통한 세계평화와 국민통합 기여하고 한국불교 역량과 비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 선불교 문화와 한국불교 이미지 선양하고 한국 우호인사 확보 등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35차 회의에서 세계평화와 국민통합을 위한 기원대회 개최를 환영하면서 △세계계무차선대회 및 세계고승수계법회에 신도 참여 적극 지원 및 진행 동참 △세계종교지도자 사찰 방문 협조 및 한국불교 우수성 세계 전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만장일치 결의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중앙신도회 '희망드림 대장정' 확산

제5교구신도회 간담회... 신도회 활성화 논의

조계종단의 신도회 조직을 재정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희망드림 대장정' 사업이 지역별로 확산되고 있다.
 조계종 제5교구신도회(회장 최윤철)는 지난 10월 1일 보은 법주사에서 제5교구신도회 활성화를 위한 교구신도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계종 신도국장 덕산 스님의 격려사와 법주사 포교국장 도암 스님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설립된 5교구신도회 현안을 공유하고 교구신도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덕산 스님은 "종단 신도조직의 골간인 교구신도회가 사찰신도회와 종단의 중앙신도회를 연결하는 허리 역할을 해줘야 한다. 한 반도 중부 지역인 충청권은 지역적으로도 신행활동에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며 교구신도회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도암 스님도 "신도회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5교구신도회가 수말사

사찰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5교구신도회 임원들은 교구신도회 활동의 한계를 이야기하며 앞으로 종단과 논의해 정책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직할교구신도회와 2교구신도회 관계자들은 서로의 활동 현황을 5교구신도회와 공유하며 종단과의 소통에 내실을 기할 것을 다짐했다.
 5교구신도회는 이어 10월 7일 청주 중앙공원에서 500여명의 어르신들께 점심을 대접하는 '부처님의 자비로 적십자와 함께하는 사랑의 점심나누기·이미용봉사' 행사를 진행했다.
 한편 조계종 중앙신도회의 희망드림 대장정은 10월8일 제8교구 직지사, 10월 12일 제6교구 마곡사에서 이어져 미결성 교구신도회의 원인을 파악하고 교구신도회 창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배현진 기자



조계종 제5교구 신도회는 10월 1일 법주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교구신도회 활성방안을 논의했다.

불교문화상품 공모 지금 도전해보세요

문화사업단, 12월 8~13일 접수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스님)은 7회 불교문화상품 공모전을 개최하고 오는 12월8일부터 13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이번 공모전은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포함한 학생부문과 일반인 및 디자인 전문가, 디자인 회사 등 일반(전문가)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일반부문은 불교문화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상품, 기념품으로 판매가 30만원 미만의 중고가 상품, 학생부문은 템플스테이, 사찰음식을 주제로 한 다양한 문화상품, 기념품으로, 판매가 5만원 미만의 중저가 상품을 개발하면 된다.
 일반 대상은 상금 1000만원, 학생 대상은 500만원이 지급되며 우수상 2명에게는 각 200만원, 장려상 4명에게는 각 100만원, 특선 6명에게는 각 50만원 상금이 수여된다.

이와 함께 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 200만원,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200만원, 한국디자인협회장상 100만원 등 특별상도 마련돼 있다.
 참가신청서 및 작품설명서, 템플스테이 및 사찰음식 로고, 사업단이 개발한 단청패턴 등은 불교문화상품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www.buddhistdesig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과는 오는 12월29일 공모전 홈페이지나 불교문화사업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상식은 2015년 1월 14일이며 수상작 전시는 1월12일부터 2월28일까지 진행된다. 신성민 기자

사명호국광장에 쇠말뚝·페인트 낙서

부산불교연합회 발견해 의도적 모욕행위로 보여 10월 1일 말뚝 제거 등 호국광장 환경 정비 나서



사명호국공원 곳곳에 낙서된 쇠못이 모양의 붉은 페인트 자국(사진 왼쪽)과 쇠말뚝(사진 오른쪽). 누군가의 의도적 모욕행위로 보인다.

임진왜란 호국열사인 승려 사명대사를 기리는 부산 초읍 사명호국광장에 쇠말뚝과 붉은 페인트 자국이 곳곳에서 발견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회장 수불)와 부산시설공단(이사장 박호국)은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박은 것 같은 말뚝과 광장 곳곳에 낙서되어 있는 붉은 페인트 자국을 9월 30일에 상당수 발견했다고 전했다.
 부산 사명호국광장은 1820년 부산진 첨사 임형준이 사명대사 부산진성 축조에 대한 공을 기려 사명대사비를 설치하고 이를 일제강점기에 부산 좌천동의 석단 정공단

으로 옮겨진 것을 부산불교계가 1981년 10월 어린이대공원에 사명대사비를 새로 이장해 기를을 마련했다. 이후 부산불교계는 추모제를 매년 봉행하고 2010년에는 사명대사비 중심으로 사명호국광장을 조성 사명대사의 호국정신이 널리 알려왔다.
 또한 지난 9월 19일에는 사명호국광장에서는 사명대사 404주기 추모대제가 봉행돼 사명대사 추모는 물론 불교계의 화합

을 도모하기도 했다.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는 "승려로서 호국에 앞장섰던 위인을 기리는 곳에 말뚝을 박고 페인트를 뿌리는 등의 모욕행위는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는 부산시설공단과 함께 10월 1일부터 쇠말뚝을 제거했으며, 훼손된 광장의 환경 재정비를 진행했다. 부산=김나영 객원기자

"세월호 특별법, 진실규명 의지 담겨야"

불교계, 法 여야 합의 관련 성명 잇달아

여야가 9월30일 타결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가 10월 1일 장두노미(藏頭露尾, 머리는 숨겼으나 꼬리는 숨기지 못하고 드러낸 모습)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의 독선과 새정치연합의 무능이 만들어낸 미흡하고 영성한 법이라는 것이다.
 이번 3차합의안은 특검 후보군 4명을 여

야 합의로 추천하되 당초 유족의 추천과정 참여요구는 새누리당의 거부로 묵살됐다. 때문에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을 양보하는 대신 특검 추천 참여를 요구한 세월호 유가족 입장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노동위는 "한국사회가 안전에 대한 총체적 문제를 밝혀내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진각종도 성명을 내고 세월호 특별법에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의지를 담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각종(통리원장 회정정사)은 10월 1일 발표한 성명에서 "우여곡절 끝에 도출한 3차 합의안마저 빛을 바래 반쪽 합의가 되고 말았다"며 "(세월호 특별법) 유가족은 물론 누구나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법 테두리 내에서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한 대한민국을 담보할 수 있는 의지를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민·배현진 기자

"가톨릭 보호한 주여사, 사찰 원형 복원돼야"

조계종 제2교구신도회, 여주시청에 청원서 제출

조계종 제2교구신도회(신도회장 민학기) 9월 29일 여주시청, 10월 1일 경기도청에 주여사지를 원형 그대로 복원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여주시는 2012년 산북면 주여리에 위치한 주여사지를 문화재 제19호로 지정한 바 있으며, 가톨릭계가 이를 가톨릭 성지로 복원하려 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 불교계가 릴레이로 진행되는 기도법회를 위해 설치한 연등을 철거해 달라고 요구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제2교구신도회는 청원서를 통해 "주여사지와 천진암지는 모두 가톨릭 전래에 대한 조정의 탄압에도 불교와 스님들이 이 땅에 뿌리 내릴 수 있게 배려하다 함께 희생당한 가슴시린 현장"이라며 "이런 문화적 가치를 계승하고 후대에 전하는 것은 하나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신도회가 지정한 천진암은 가톨릭 성지로 조성되며 불교명칭이 빠지고, 암자 흔적이 사라졌다.
 신도회는 "광주시 천진암과 같이 불교 사찰의 흔적을 제거하고 오로지 가톨릭 시설만 신축하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주여사를 가톨릭 강화 당시 사찰로 복원해 천주교와 불교의 화합의 상징으로 만드는 것이 불교계의 간절한 요청"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2교구신도회는 "향후 7월 6일 입재한 1000일 기도와 함께 다큐멘터리 또는 영화를 제작해 주여사와 천진암에 얽힌 역사를 국민 전체에 홍보할 계획"이라며 "절단산 가톨릭 성지에 옮겨진 해운대사 의정 스님비와 여주시에 보관된 부도탑부터 먼저 주여사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불광산사 범종 (중량 6700관)

성종사, 대만 최대 불광산사 범종 수출!

세계로 수출되는 성종사 범종! 우리의 자랑스런 불교문화유산입니다.

최근 세계적인 범종 제작회사로 거듭나고 있는 성종사가 대만 최대 사찰인 불광산사 범종을 수수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대만 최대 규모인 6,700관 (25.5ton)으로 제작된 본 범종은 성종사 특허공법인 밀랍주조공법으로 제작되어 표면과 문양이 매우 매끄럽고 섬세할 뿐만 아니라, 음향측정 결과에서도 소리가 매우 웅장하고 맥놀이가 뚜렷하다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성종사의 범종은 대만,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전세계 불교권 국가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종을 위해서
 한쪽 눈을 바쳤어
 혼을 담아야 천 년의 소리가 나오는 거지
 잔재주 부리면 끝이야! 끝!

고객을 위한 원칙과 고집
 한국의 명장,
 당신의 마음을 배우겠습니다!

● 전사관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 02)733-6141 / FAX 02)733-4840
 ● 사이트 : www.sungjongsa.co.kr / E-MAIL : sungjongsa@hotmail.com
 ● 공 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TEL 043)536-2581 / FAX 043)536-2582
 ● 대 표 : 범산 원광식 (중요무형문화재 제 112호 · 대한민국 명장)